신기섭 사우를 지켜주십시오!

'말공장' KBS는 건강했습니다. 시절에 따라 다수와 소수는 있었어도, 말이 살아있었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받기도 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반대에 또 반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KBS는 건강했습니다. 아주 맑고 선명하지는 못해도, 내부의 의견들이 피처럼 돌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싸우고 이해했습니다.

신기섭 사우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KBS에 대한 지나친 애정이 불러온 결과는 개인의 과실에 기인했지만, 그에 대한 부당한 해고 결정은 KBS 전체를 멍들게 했습니다. 이제 KBS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갈등과 투쟁이 사라지고, 획일적인 잣대와 통제만 존재하는, 규정집 속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타박과 아쉬움의 말들도 들립니다. 비난과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섭 사우가 가졌던 '우리 회사, KBS'에 대한 애정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빚어낸 생채기는 탓해도, 그것 때문에 그를 KBS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기섭 사우와 사랑하는 가족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KBS의 건강함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신기섭 해직 사우의 특별인사위원회 진술서 中

저는 공영방송 KBS를 사랑합니다.

나름 옳은 길, 바른 길을 가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입사이후 지금까지 모난 돌이었습니다.

이제 오십대의 중반을 넘었습니다.
상처밖에 남지 않은 모난 삶이었지만, 나름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그지없이 여전한 어머니의 사랑,
형제자매들의 격려, 아내를 비롯한 아들들의 이해가 있어 버텨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영방송 KBS에 정년퇴직 시까지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해주십시오.

신기섭 사우를 지키겠습니다(매월 정기후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후원금납부						
	이 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구내전화	
	후원금 약정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기타 만원			매월 출금일	☐ 매월 5일 ☐ 15일 ☐ 25일

납부방법				
	☐ **CMS자동이체** 금융결재원을 통해 자동이체 의뢰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신 회비를 수수료 없이 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 좌 번 호			
	출 금 은 행		예 금 주	
	예 금 주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전국언론노조KBS본부가 공지한〈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CMS 출금이체 동의 본인은 전국언론노조KBS본부에 CMS 출금이체를 이용하여 후원금를 내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후원인 서명	